

## 【 해외금융뉴스: 중국 】

## 새로운 판매 채널로 주목받는 온라인 보험시장

- 글로벌 금융위기로 그동안 중국 보험시장의 성장을 견인해 온 방카슈랑스마저 부진을 면치 못하게 되자 최근 보험회사들은 신규 판매 채널로 인터넷에 주목하고 있음.
  - 보험업계는 젊은 고객층에게 크게 어필할 수 있는 온라인 보험시장이 앞으로 개인보험, 단체보험, 방카슈랑스 시장에 이어 주요 보험시장으로 자리잡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.
  - ‘보험회사 혹은 보험중개기구가 인터넷 기술을 이용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’로 규정되는 중국의 온라인 보험시장은 여타 온라인 거래시장에 비해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하다가, 최근 금융위기 이후 신규 채널 확보가 절실한 보험회사들에게 발전 잠재력을 인정받고 있음.
- 중소 손해보험회사들을 중심으로 온라인 보험시장에 적극 참여하고 있으며, 특히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한국의 온라인 자동차보험 시장을 벤치마킹하고 있음.
  - 양광그룹(陽光集團)은 일찌감치 인터넷 결재 솔루션 기업 콰이첸(快錢)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해 인터넷 보험 판매시스템 구축에 박차를 가한 결과, 자회사인 양광생명(陽光人壽)은 설립 1년 만에 전국 15개 성(省)에 진출하였으며 양광손보(陽光財險) 역시 설립 4년 여 만에 전국적인 보험회사로 도약함.
  - 안방손보(安邦財產保險)는 한국의 자동차보험 시장이 온라인 판매로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사례에 주목하고 항저우에 2천석 규모의 대규모 인터넷 보험 전용 콜센터를 설립하여 공격적인 마케팅을 전개하고 있음.

(제일재경일보 5/28)